

농협 광주·전남본부 수장들이 밝히는 새해 사업

아파트 소매유통 강화
중소상인 여수신 확대
쌀 평생고객 150만 확보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신성수 광주본부장

별 연합마케팅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산조합을 중심으로 애호박·꽃고추·방울도마토·딸기 등 광주의 특성에 맞는 명품농산물을 육성, 산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소외된 광주쌀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의 전향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의료·복지·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인 백내장 무료 수술지원, 의료기기 지원사업, 농촌 봉사자 양성, 농업인 초청행사 확대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할 방침이다.

신성수 본부장은 "특히 도시농협의 역할과 관련, 여수신 증대와 수익원의 다각화를 통해 경영을 내실화 하겠다"면서 "고객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소호고객 지원, 중소기업 대우 등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수입 2조원 달성, 건전여신 2조원 돌파 기록을 세운 광주본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올해에는 상호금융 예수금 3조8천억원, 대출금 3조4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1조합 1품목 전문화·규모화, 생산자 조합중심의 연합 조직화, 사자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덕수 전남본부장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올해 '변화를 선도하는 1등 전남농협'을 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농업 지원강화,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계통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집결, 혁신적인 경영을 통한 종합업적 1위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조직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본부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전남쌀 평생고객 150만명 확보. 이를 위해 농업인과 농협, 지자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남에 연고를 둔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30만명의 조합원들이 1인당 5명씩 150만명의 평생고객 확보에 나선다.

또 농축산물 판매액을 2조3천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사업의 하나다. 전남본부는 농산물마케팅팀을 신설해 농산물 판매를 전담토록 하고, 도연합사업 취급품목도 8개로 늘릴 방침이다.

나주와 장성 등 5개 시군 연합사업 단별로 특화전략을 수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광역브랜드인 '풍광수토' '햇맛' '순한한우' '녹색한우' '해두루' 등은 품질관리를 강화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덕수 본부장은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확대해 올해에는 450억원 이상을 공급, 전남 학교급식의 52%를 점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실익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농기계 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조합수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농자재 연합구매사업을 통해 34억원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나가게 된다.

이밖에 전남본부는 ▲농촌사랑 시범마을과 소득지원개발사업 7억원 투입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상호금융 예수금 11조원, 대출금 7조원 추진 ▲농협 직원 1인 1성급제와 갖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대한조선 세계 41위 급부상”

조선·해양 시황분석 전문기관 '클락슨' 평가
국내 중형사선 '조선한국' 허리 역할 기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는 해남의 대한조선이 5개월만에 세계조선업계 41위로 올라서는 등 대형업체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24일 조선·해양 시황분석 전문기관 클락슨은 대주그룹 계열 대한조선(해남군 화원면)이 지난해 말 기준 102만3천CGT(선박의 부가치·강제소요량 등을 고려해 산출한 보정총톤수)로 세계 41위에 랭크돼 놀랄만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의 이같은 실적은 세계 '빅3'에 드는 국내 조선업체들을 제외한 국내 중형 조선업체의 비

약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한국 조선업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락슨은 특히 지난해 12월말 현재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위 조선소에는 한국에 위치한 조선소가 전체의 26%인 13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6년말 기준으로 할 때 50위 안에 포함된 한국 소재 조선소가 10개소였으나, 3개소가 늘어났다. 이는 이른바 '빅3'을 제외한 중위권 그룹의 선전에 따른 것이다.

세계 1~6위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SLS조선, SPP, 21세기조선 등의 중형 업체들이 한국 조선업계의 '허리' 역할을 푼뚝히 했다.

통영에 조선소를 갖춘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수주잔량은 280만9천CGT로 세계 9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 또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건조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LS조선(통영)도 2006년말 기준 18위(수주잔량 120만7천CGT)에서 지난해 말 15위(199만9천CGT)로 3단계 올라섰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시장 자체가 좋아진다 보니 이들 업체의 영업여건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며, 세계 조선업계의 '코리아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이들 업체가 한국 조선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와인 설 선물세트

광주시세계 와인나라가 설 선물세트로 와인 마개, 와인서버, 와인온도계, 홀일키터 등 액세서리가 포함된 와인 선물세트를 판매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세계 제공>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실적 2천억 넘어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옥)의 총 보증공급 규모가 2천억원을 돌파했다.

24일 전남신보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공급 실적 이 총 2천5억4천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재단 설립 이후 6년여만에 보증공급 규모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매년 평균 41.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 발주자에 통보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 막는다

올해부터 하도급 정보망 운영

올해부터 1건당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불법 하도급 방지 차원에서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4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전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의 공

정·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된 하도급공사 정보망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하도급공사 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등을 기재한 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업체의 거래 방식 개선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이었으나, 하도급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각종 불법·불공정 거래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원·하도급공사 대응을 손쉽게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주자는 통보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조사와 처벌요구를 할 수 있어 전산망을 통한 공사현장 감독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전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전자통보 제도는 각종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는 데다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준비 철저”

농촌공사 임수진 사장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나주 공동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일 전남도 본부에서 열린 업무보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임수진 한국 농촌공사 사장은 “시대변화에 맞춰 지역농업인의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



공사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며 “앞으로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에 전진기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도록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열린 경영’을 강조했다.

임 사장은 “올해로 농촌

住公 광주·전남본부장 고재택씨



24일 대한주택공사 신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고재택(52·사진) 본사 택지개발처 처장이 임명됐다.

신임 고 본부장은 오는 28일 취임하며 전임 이철현(55) 광주·전남본부장은 본사 택지개발처 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ony New BRAVIA TV. Features include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and '소니는 화질에 관한 모든 TV에도 비교를 거부합니다!!'. Includes a list of models and prices, and a phone number 062-522-2000.

Advertisement for Garam (가람) restaurant. Features include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and '확장이전'. Promotes a 30% discount (세일 30%) and lists menu items like '가람' and '초슬림!!'.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Garam Gwangju branch.